

## <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

정윤아 (홍콩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 3. 조지아 오키프: 미국 모던 회화의 선구자

#### 조지아 오키프 Georgia O'Keeffe (1887-1986)

미국 위스콘신 출생. 어린시절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으며, 열 살 즈음에 이미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채화 등 그림 공부를 시작. 재정적인 이유로 학업을 그만둔 1908년부터 몇 년간 미술을 잠시 그만둔 것을 제외하면 전 생애 동안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고 말할 수 있음. 그녀의 삶과 예술에 있어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Alfred Stiglitz, 1864-1946)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그는 유명 사진가이자 291이라는 갤러리 운영자로 당시 미국 아방가르드 미술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 오키프는 그의 덕도 보았지만 그의 그늘 때문에 홀로서기에 오랜 세월이 걸렸다.

#### 작품경향

##### 사실주의 성향의 회화들

1905-6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1907년에는 뉴욕에서도 미술 공부(The Art Students League). 이때 미술상을 수상. 어린 시절 공부했던 수채화에 대한 기억으로 그녀의 작품에는 수채화가 많이 등장함. 꽃이나 동물의 뼈 등을 주제로 한 자신만의 대표적인 연작들을 발표하는 가운데 사실주의 성향의 회화들도 지속.

##### 추상화 작업

재정적인 이유로 잠시 미술 공부를 중단하였으나 1912년, 버지니아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 이때, 아시아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아더 도우(Arthur Wesley Dow)의 혁신적인 철학과 예술을 접함. 1912년부터 14년에 본격적으로 수채화를 시작하였고 1915년부터 추상화를 제작. 오키프의 친구가 그녀의 드로잉 및 수채화 작품을 스티그리츠가 운영하는 291갤러리(1905-1917)에 보냄. 그녀의 작품에 감탄하여 1917년, 자신의 갤러리에서 전시 개최. 1918년, 스티그리츠의 권유로 뉴욕으로 이주. 그녀의 창작 활동 지원 및 홍보. 연인 관계로도 발전. 이 시기에 미국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작업 전개. 2010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에서 그녀의 추상 작품만을 모아서 전시하면서 작품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았다.

## 꽃 연작

확대된 꽃 이미지를 그린 오키프의 대표적인 연작 중 하나. 대담한 구도와 당시 사용하지 않던 다양한 색상의 사용으로 그녀를 스타 화가의 반열에 올려 줌. 꽃의 유기적인 형상으로 인해 인간의 몸(특히, 여성의 성기)에 비교되곤 하나, 그녀는 이러한 해석을 거부. 평론가나 대중들의 이와 같은 해석에는 자신이 요부 또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개방적인 여자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 그녀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스티그리츠와의 불륜 관계 및 그가 1918년부터 촬영하고 1921년, 뉴욕의 앤더슨 갤러리에서 전시한 오키프의 누드 사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뉴욕 마천루 연작

1924년, 스티그리츠와 마침내 결혼하여 1925년, 당시 뉴욕의 최고급 주거지였던 쉐튼 호텔의 30층 아파트로 이사. 당시 291 갤러리에서 소개하던 \*정밀주의(Precisionism)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도시 마천루 연작(City Skyscraper)을 시작. 1927년, 스티그리츠의 알선으로 브록클린 미술관 전시 등 생애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보냄.

\*정밀주의: 1915년부터 1930년대까지 활동한 미국인 화가 그룹으로 주로 뉴욕 맨해튼 풍경, 공장과 굴뚝, 마천루와 교량 건물과 기계 등 대부분 미국의 산업과 건축에서 모티브를 차용한 산업적인 풍경을 그렸다. 추상적인 성향이 있었으며,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에 관심이 높았다. 쉐러Charles R. Sheeler(1883~1965), 데무스 Charles Demuth(1883~1935),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

## 풍경화

19세기 미국 미술계를 주도한 허드슨 리버 스쿨(Hudson River School)의 풍경화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포착하여 재현과 추상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스타일을 탐구. 재현적인 동시에 추상적이면서 신비하고 영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1929년, 스티그리츠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절망감에 빠진 오키프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된다. 이때, 뉴 멕시코 지역을 여행하다가 광활한 풍광에 매료되어 이 지역 풍경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됨. 그녀의 풍경화들은 자연의 형태 속에 화가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담아내며, 숭고함에 대한 명상적 성향을 띠. 스티그리츠의 죽음 이후, 이 지역에 영구 정착하였으며, 생애 마지막 몇 년간은 산타페에서 지내면서 이 지역을 그림.

## 동물 해골 연작

1929년부터 뉴욕과 뉴 멕시코를 오가며 작업하던 오키프는 점차 뉴 멕시코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풍경화를 그리면서 사막 여기저기를 혼자 여행하고, 사색하면서 이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는 돌, 동물 해골이나 뼈를 주제로 초현실주의적인 성향의 새로운 풍경정물화를 발표하여 미술계로부터 큰 호평을 받는다.

## 말년작

살아생전 4회 이상의 대규모 회고전을 가짐. 1972년 시력을 거의 상실하여 유화를 중단하고 대신 주로 도자기 작업 및 연필, 목탄이나 수채화에 전념. 1976년, 자서전을 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됨.